



본란의 기사는 본회의 미국내 홍보회사(Hill & Knowlton)의 보고서 및 EC주재 변호사의 보고서를 기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본회 국제부(TEL:553-0941/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1. 經濟政策 研究所 報告書, HDTV와 關聯 技術 분야에서 美國의 낙후성 지적

워싱턴에 소재한 經濟政策 研究所(Economic Policy Institute)의 報告書는 미국이 次世代 TV 映像 시스템과 기타 尖端技術 분야의 販賣와 生産에서 國際競爭 基盤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 報告書는 美國이 日本과 EC의 競爭國과는 달리 通信産業에서의 國際競爭에 대처할 광범위한 産業政策을 開發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서 美國이 HDTV와 이와 관련 技術部門에서 日本과 기타 國家와 효과적으로 競爭할 수 있는 戰略 開發에 실패한다면, 200萬 이상의 實業이 발생하며, 2010년까지 電子部門에서 2,250億 달러의 貿易赤字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였다.

로버트 코헨과 케네스 도나우 研究員에 의하면 작성된 報告書는 通信技術에서 競爭力을 확보, 유지하는 日本과 EC와 유사한 政策次元의 政策을 강력히 권고 하였다.

나아가서 現在의 美國 通信政策은 부적절하며 “外國으로 부터의 競爭挑戰에 건설적인 대응을 阻害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報告書는 “美國 通信産業이 직면하고 있는 産業 問題와 規制的 懸案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 중에는 日本 電話公司와 通산성의 공동 조정 노력을 허용하는 日本의 경우와 같은 慣行을 따르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형태의 협력이 美國에서 관행된다면, 現在 獨占禁止法의 調査對象이 될 것이다.

이 報告書는 美國의 通信産業이 지난 50年間의 法律 條項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기술하고 있다.

반대로 日本과 EC 國家들은 성장을 촉진하고 미래의 尖端産業 발전을 支援할 制度的 裝置를 마련해 왔다고 주장한다.

著者들은 또한 효과적인 通信政策에 阻害要素를 야기시킨 연방통신 委員會(FCC), 국무부, 상무부, 무역 대표부(USTR), 國防부와 같은 다양한 政策機構들을 비판하고 있다.

이 많은 關聯部署들은 중복되고, 理解分野의 상충으로 政策의 불협화음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약점을 치유하기 위하여, 이 報告書는 새로운 高位級 부서인 通信部(Departmennt of Communication)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 부서는 “通信裝置와 서비스 産業 調整 위한 政策과 美國의 응집력 있고 일관성 있는 通信政策의 立案과 遂行”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著者들은 독립적인 通信部の 설립으로 通信政策에 관한 과거의 혼란스러운 論爭이 기타 부처들을 종속적인 위치로 격하시킴으로서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가. 기타 勸告內容

●현재의 通信網을 最高 수준의 디지털 네트워크로 개혁하기 위하여, 地方通信 시스템을 규제하고 있는 國家 通信 서비스 委員會의 現行 政策은 신설 通信部에 의해 대체되어야 하며, 이에 의하여 通信網 高度化 速度를 촉진시킬 수 있다.

●현재 裝備의 교체 속도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디지털 네트워크 採擇業務를 수행하는 理事會는 議會에 租稅政策을 “勸告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政府는 “國家的인 HDTV 産業 구축을 위해 신속히 행동해야” 하며, 이 産業에의 財政支援은 공여, 대부, 라이선스 등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 HDTV 産業 지원 위한 노력의 하나로 美國 經濟의 장래를 관리하는 美國의 능력에 영향을 주는 현재의 獨占禁止法은 재고되어야 한다.

## 2. 美·日, 人工 위성 및 슈퍼 컴퓨터 會談 合議到達에 실패

美國과 日本은 최근 日本의 슈퍼 컴퓨터와 人工 위성 市場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회담을 가졌다.

兩國은 내년 綜合 貿易法 수퍼 301條에 따른 보복 조치를 피하기 위하여 本 會談에서 합의를 시도하였다.

### 가. 人工 위성

日本 人工 위성 市場의 外國人 참여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2일간의 協商 끝에, 兩國 政府代表들은 아무런 합의없이 會談場을 나섰다.

美國 代表들은 日本이 國內 人工 위성 市場을 保護하기 위한 규제적 慣行을 통하여 공공 部門의 人工 위성 購買分野에서 공정한 경쟁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USTR의 조세프 메시에 의하면 “會談이 具體的 結果를 낳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두번째 회담이었는데 양측은 내년 1월 다시 회동기로 하였다.

내년까지 競爭解決에 이르지 못하면, 美國에 의한 보복조치가 가능하다.

워싱턴은 위성의 목적이 상업적인 것이지,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外國이 참여 없이 日本 우정서의 CS-4 통신 위성 開發計劃을 指摘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美國 관리들은 日本內 “소니”가 주축이 되는 콘소시움에 위성을 販賣할 경우의 제네랄 일레트릭의 隘路事項을 거론하였다.

日本 政府는 日本의 위성 서비스 市場은 이미 포화 상태라고 주장하며 콘소시움에 의한 販賣 방해를 부인함으로써 美國의 판매를 효과적으로 봉쇄했다.

### 나. 슈퍼 컴퓨터

日本의 슈퍼 컴퓨터 市場에 관한 협상도 비슷한 상

황이었다.—2일간의 협의, 합의 未到達 하였다.

美國 대표들은 슈퍼 컴퓨터에 관한 日本의 차별적 上 業 關 行 과 政府 購 入 關 行 이 美國 輸 出 에 對 하여 장 벽 을 構 築 하고 있 다고 主 張 하 였 다.

보도에 따르면, 美 行政部는 美國 製 品 의 經 濟 力 을 받 기 때 문 에 폭 넓 은 市 場 開 放 에 매 우 關 心 이 깊 다.

美國의 슈퍼 컴퓨터 業體가 世界市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日本 市場에서는 단지 6%에 불과하다.

美國의 비판은 日本企業이 학교와 政府機關에 어느 경우 80%까지 달하는 과도한 디스카운트를 해주고 있는 점에 모아지고 있다.

美國 관리들은 이 관행은 불공정한 경쟁에 해당하며 美國 企業을 日本 市場에서 몰아내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다른 問題는 日本 政府에 의한 購 入 關 行 이다.

美國 관리들은 日本 政府가 美國 生 產 業 體 가 入 札 試 行 을 爲 하기 爲 한 公 正 한 기 회 確 保 에 必 要 한 時 間 內 에 購 入 與 件 을 밝 히 지 않 는 點 을 不 平 하 였 다.

日本政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였으나 美行政部를 만족시킬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兩國 政府 代表는 내년 초 두번째 會談을 갖기 위해 도쿄 또는 워싱턴에서 다시 會同할 것이다.

## 3. 美 議會, “相互 投資 增進 法案” 제고

툼 캠벨 下院 議院(共-캘리포니아)은 11월 7日 美國의 海外投資 장벽 제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법안을 제안하였다.

“相互 投資增進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美國의 투자에 대하여 內國民 대우 원칙을 거부하는 外國의 法律, 政策, 關行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실리콘 벨리 심장부를 지역부로 갖고 있는 캠벨 議院은 法案 상정 기자외견에서 “美國은 美國의 투자를 받아들이는 國家에 대하여 투자 개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美國 投資家의 방문을 문간부터 거절하고 불

을 거부하는 國家에 대하여 환영의 방식을 피는 것은 옳지도, 잘하는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美國의 投資家들이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비슷한 대우의 잇점을 공여하지 않고 있는” 몇개의 國家를 예로 들었는데 이중에는 韓國과 日本이 들어 있다.

그는 韓國이 개별 投資計劃에 貿易 歪曲의 조건을 부과하거나 지연이 가능한 事案別 投資認可 절차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불평하였다.

추가로 韓國이 “農業, 出版, 라디오, 텔레비전 放送分野 등 28개 産業部門에서 外國人 投資를 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캠벨 議院은 또한 文化的 差異와 政府가 부당한 貿易障壁이 美國 投資의 주요 저해 요인이라고 특히 強調하였다.

1974년 通商法을 개정함으로써, 相互 投資增進法은 外國의 貿易相對國이 美國에 대한 投資市場 개방의 정도와 동일 수준으로 不動産, 證券, 製造, 金融, 農業分野에서 外國에 대하여 美國 市場을 개방할 것을 USTR에 명령하게 되어 있다.

캠벨 議院은 이 “法案은 外國人 投資에 대하여 廣範圍한 保護貿易的 規制措置를 賦果하는 것”이 아니며 “美國에 投資議會를 허용하는 國家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市場開放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가. H & K 論評

本 法案에 대한 지지가 있지만, 이 法案의 장점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상존하고 있다.

이 法案은 稅入稅出 委員會에 이송되었는데 샘 김슨 委員長이 本 法案의 검토 책임을 맡고 있는데 공동 발의자로서 署名하지 않았다.

김슨 委員長의 지원없이는 캠벨 法案은 시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논란에 직면케 될 것이다.

### 4. 美 下院, 行政部에 輸出統制 過程의 檢討 促進

國際 經濟政策과 通商에 관한 下院 外交 小委, 委員들은 최근 行政部 관리들이 特定 尖端技術 部品の 輸出規制 해제 노력을 지연하고 있다고 불평하였다.

小委員會의 게즈텐슨 의장(民)은 레이건 당시 大統領이 輸入規制 解제를 선언한 한참 후에 半導體 生産에 사용된 와이어 바인더, 機械類의 輸出을 해제하지 않음으로서 行政部 관리들이 美國 輸出 統制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行政部의 와이어 바인더 輸出 규제 해제 반대를 지적하면서, 게즈텐슨 의원은 아마도 1990년에 종료되는 輸出管理法內的 現행 法案을 강화함으로써 輸出 統制法의 개정을 촉구하였다.

### 5. 뉴스쫓점

#### 가. 백악관/로스법안

부시 大統領은 美國이 國際 貿易增大 이익을 더욱 증대시킬 목적으로 토비 로스 下院이 제안한 2개의 法案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法案은 商工通商部의 창설과 ITC에게 市場閉鎖 國家에 대한 제재권한을 부여하였다.

大統領이 반대할 것이라는 예상은 이러한 형태의 立法이 GATT 會員國으로부터 비판을 불러 일으키며 우루과이 協商 타결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기인한다.

議會에서도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는 소식임. 로스 議院도 이와 같은 반대를 알고 있으나 그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현안을 신속히 해결치 못하기 때문에 美國인들이 부분적으로 이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 나. USTR/反덤핑

行政部는 GATT 會員國에 反덤핑 코드 강화를 제안. 또한 A/D절차를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절차 간소화 방안을 열거하였다.

#### 다. USTR/서비스

칼라힐즈 代表는 觀光, 保險, 財政 研究所와 같은 GATT 규정에 들어 있는 14개 부문을 GATT 事務國의 결의에 따라 서비스 부문으로 분류되길 희망한다고 발표하였다.

힐즈는 서비스 부문 협상을 “論難이 많다”고 표현하며 GATT 규정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약 5,600억불 상당의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이 제안을 엄격히 다루어 줄 것을 촉구하였다.

#### 라. ITC/日本の 流通制度

ITC는 日本 市場進출을 위한 美國의 정책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日本의 流通制度 조사에 착수하였다.

본 조사는 1930年 關稅法에 따라 下院 세입세출 委員會 요청으로 개시하였다.

#### 마. 下院/Perkin Elmer 인수

리차드 게파르트 下院 多數黨 원내총무(民)와 經濟安定에 관한 下院 金融 小委員會 議長인 메리오카 下院 議院은 브래디 財務長官에게 보낸 서한에서 모든 外國企業의 Perkin Elmer社 半導體 材料, 裝備(SM&E) 부문의 인수를 위한 입찰 신청내역의 조사를 촉구하였다.

그들은 外國企業의 美國 業體 인수가 이의 판매로 인하여 美國의 國家安保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금지되어야 하는가를 外國人 投資 委員會가 조사하도록 규정한 엑손·폴리오법에 의하여 조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공식적인 外國人 입찰 신청은 없었다.

#### 바. 商務部/HDTV

로버트 모스베커 商務長官은 멜 레빈 下院 議院(民)에 보낸 서한에서 行政部는 HDTV 개발이 美國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技術問題 중의 한가지로 考慮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모스베커는 또한 美 行政部는 HDTV 産業을 기타 特別計劃과 함께 특별히 선정할 의도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 사. SIA/反덤핑 규정 개정

SIA(美 半導體工業協會)는 최근 國內 反덤핑法の 강화와 현재 마지막 해로 접어들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 協商에 관한 세가지의 勸告事項을 모스베커 商務長官과 칼라힐즈 USTR 대표에 제출하였다.

이 反덤핑 改正案은 EECA(유럽 部品製造業者協會)가 승인과 동시에 EC 執行部에 제출한 것과 같은데 半導體 부문 反덤핑法에 관한 것임. 反덤핑 改正案의 主要内容은 1) 덤핑 防止, 2) A/D 關稅 회피 방지, 3) 半導體 생산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공정 시장가격(FMV) 산정에 포함됨을 보증하였다.

#### 아. CSPP/議長選出

컴퓨터 시스템 政策 計劃(CSPP: Computer Sys-

tems Policy Project)의 首席 委員會 議長으로 Hewlett-Packard Company의 社長인 Johnn Young이 피선되었다.

10명의 中역 委員會 중 7명이 通商 및 技術政策 문제 협의를 위해 첫번째 會議을 가졌다.

CSPP는 금년 6월에 컴퓨터 産業에 유익한 公共政策 開發分野에서 컴퓨터 業界에 명확한 政策的 권고를 추진키 위하여 설립되었다.

#### 자. CATO/經濟制度措置 研究

워싱턴에 소재한 독립적 公共 政策 研究機關인 CATO 研究所는 최근 대외 政策 수단으로서 美國이 취한 經濟 制裁措置에 관한 研究 報告書를 발표하였다.

制裁措置로 輸入規制, 輸出統制 부과, 對外 財政援助 축소, 美國에 投資한 金融資産 동결 등을 예로 들었다.

## 6. 아시아·태평양 12개국 反保護主義 協力 모색

美·일을 포함한 아·太平洋 주변 12개국은 保護主義 반대와 自由貿易 지지를 위한 世界 貿易 체제의 변화를 위해 압력 단체로서 相互協力할 것을 동의, 최근 캔버라 회의에서 이들은 진행중인 GATT 우루과이 라운드 多者國 貿易協商에 영향을 주기 위해 그들의 결집된 힘을 사용키로 하였다.

신 아시아·태평양 경제권 결성을 꾀하는 이들 12국은 아직 조직구조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전반적인 國際 經濟關係 개선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금번 회의에 참석하는 12국은 日本, 美國, 캐나다, 韓國, 濠州,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임. 관계자들은 이들 12개국 협력은 빠른 經濟 成長을 유지하고 貿易·投資·通信 그리고 技術 이전의 장벽을 줄이며 우루과이 라운드 회담이 世界 經濟의 개방화에 기여토록 촉구하며 논란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칼라힐즈(美·貿易代表)는 캔버라 회의에서 우루과이 라운드야말로 關稅무역과 保護主義 확산을 방지하는 유일한 것임을 강조했다.

첫 모임을 지닌 아·태평양 대표들은 차기 모임을 1990년 중반 싱가포르에서, 1991년 서울서 개최키로 합의하고 아·태평양 회의의 상임위원들은 GATT 협상의 진전에 관해 제네바에서 정기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 7. 原產地 規定 논란 증대

新聞報道에 따르면 명료한 原產地 規定 설정에 관련해 우루과이 라운드 회담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재조명하고, 貿易 관계자들은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換率 변동과 인건비의 차이는 日本에서 방글라데시에 이르기까지의 제반국가들에서 만들어진 상품에 똑같은 原產地 規定을 적용하는 것을 극히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다.

美國은 貿易 및 投資를 왜곡하기 위해 현행 규정을 사용하고 있다고 EC를 계속 비난하였다.

日本 企業들은 상품이 어떻게 분류될 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美國 공급자에 의존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짐. 그 결과 日本에 供給하기를 원하는 美國 企業들은 販賣量이 줄고 있으며 EC 역내 投資를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對外 關係 執行委員인 Mr. F. Andriessen을 포함한 EC執行委 관리들은 原產地 規定은 중립적이며 EC는 이를 通商政策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EC 域內 投資를 강요하는 政策은 없다고 주장.

또한 집행위는 모든 境遇에 適用될 수 있는 절대적 原產地 規定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8. 美·日 회담과 GATT 진전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

칼라힐즈는 우루과이 라운드 회담이 성공하기 위해 서는 美·日間 논쟁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언급. 그러나 11月 세계주에 있었던 第2次 美·日 貿易會談은 실망스런 결과를 초래하였다.

美國 관리들은 해결되어야 할 현안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에 도달하는데 거의 융통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日本을 비난하고 더 나아가, 代表團은 貿易과 경상수지 불균형에 내재된 구조적 問題를 토의하기 위한 새로운 추가 조치를 모색하고자 하지 않고 있다.

美國은 이 회담이 世界 經濟를 위협한다고 믿고있는 日本과의 貿易赤字를 다소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회담에서 美國과 日本 市場의 가격 차가 아직 큰 폭으로 존재한다는 점이 토의되었으며, 122개 품목 중 84개 이상의 품목이 美國보다 日本 市場에서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나타났으며, 美 商務部 차관인 Mr. M. Farren은 이러한 價格 차이는 日本 經濟의 構造的 장애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 9. 通商長官들 도쿄 회담

도쿄에서 열린 通商長官 회담에서 앞으로 1년후 완결 예정인 우루과이 라운드의 성공 여부는 政治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本 회의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을시 현행 다자간 무역협계에 치명상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또한 현재 美國 貿易政策의 편무주의의 종결과 수입을 방해하는 반경쟁적 구조를 개선토록 日本이 공약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에 참여하는 國家들의 政治的 개입 없이 편무주의와 보호주의의 확산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 10. 美國 칩 에칭(Chip etching) 업자와 日本 企業들의 회담

美國의 선두적 Lithography 장비 조작 업체인 퍼킨 엘머(Perkin-Elmer) 사는 日本 기업들과 半導體 생산 설비 부문의 판매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회담중이다.

니콘, 캐논, 마쓰시타 등 日本측은 최근 퍼킨 엘머사와의 상담에 참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半導體 産業 관계자는 半導體 生産技術의 핵심 부문에 대한 美國의 통제력 상실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퍼킨 엘머의 Lithography 장비생산이 外國人 손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